

KOSTA에서 발견하는 청년부흥의 비결[1]

- 광수광 목사 / 2003. 6. 2 -

저는 지금 '코스타' 라고 하는 단체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름만 듣고 코스닥과 연관된 무슨 증권회사 비슷한 곳으로 착각하시기도 합니다만, 해외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라서 소개하기에 조금 주저되는 면도 있지만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또 수 많은 청년들이 코스타에서 청년부흥의 희망을 발견하는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코스타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약간의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타는 'KOREAN STUDENT ABROAD'에서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 졌습니다.

원래 마지막 A자는 이 수련회가 처음 시작된 America였었는데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가면서 해외를 뜻하는 Abroad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86년 워싱턴 근교에서 약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년 12곳에서 약 8000명이 모이는 집회로 커졌습니다.

참석한 학생들 중 대개 10%정도의 학생들이 코스타에서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합니다. 약 5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수천명의 학생들이 단기선교사로 일어섭니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헌신하는 것을 보는 곳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 고등학교 조기 유학생들을 위한 'YOUTH KOSTA'가 몇몇 나라에서 시작되어 엄청난 호응을 얻으며 성장하고 있어 청년 코스타와 맞먹는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였는데 이제는 이민 1.5세 2세들이 절반 가까이 참석하고 있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남미 같은 곳에서는 전체가 다 이민자의 자녀들이 참석하는 코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해외 유학생 수양회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는 해외 한국학생 수양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 하신 분은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 이시지만, 곧 한국의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오늘날과 같은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 청년 학생들이 이 집회에 오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용시설을 초과하는 지원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등록 마감시한이 가까워 오면 자기 자녀나 교회청년이 꼭 등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로비전화(?)도 가끔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행기 값을 아끼기 위해 40시간을 운전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10시간 정도는 기본이고요. 중국에서는 20시간 30시간씩 기차를 타고 옵니다. 러시아에도 15시간 걸리는 기차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미는 버스로 이동을 하는 데 나라별로 다르지만 30시간 40시간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렇게 청년 학생들이 말씀 들겠다고, 변

화 받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비전을 발견하겠다고 그렇게 꾸역꾸역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눈물이 핑 돌고 코끝이 뜨거워집니다.

하긴 그렇게 큰 대가를 치루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좋은 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스타에 오는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갈급해하는 만큼 은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부흥이라는 값진 열매를 위해서는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과 희생과 눈물이 뿌려질 때 값진 부흥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